

한국 말일성도 청소년

특집

편집자 주: 이번 호에서는 한국 지역 공보 위원회 소속의 성도의 몇 기자들이 모여 기획한 특집 기사를 다루었다. 비록 기자들의 활동 범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구성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아론 신권이 회복된 봄이라는 계절적인 특성과 신앙이 뿌리 내려 자리를 찾는 소중한 시기인 감수성 예민한 미래의 교회 지도자가 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특집 기사를 꾸민 것이다.

먼저 청소년 활동 모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테이크와 한 지부를 탐방하여 청소년 활동 상황을 취재하였고 청소년을 훌륭하게 지도해 온 지도자, 교문,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중등부 세미나리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훌륭한 교훈을 얻은 형제의 간증 등을 실어 이상적인 청남·청녀상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지도 방법을 통하여 교회의 많은 청남, 청녀와 그들을 관리하는 지도자와 부모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이 특집을 마련하였다.

대구 지역 청소년 활동

1988년도 대구 스테이크 청소년 활동의 주요 목표는 “선교 사업”이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1) 예비 선교사 프로그램 실시, (2) 선교사 기금 준비이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25~26일에 구미 금오산에서 야영 대회를 가졌는데 그 활동을 통하여 선교사로 부름받기 위한 목표를 정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시도한 바 있다.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구체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지난 4월 16일에 스테이크 내의 세 개 와드 청남, 청녀들이 모여 예비 선교사 대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 지난 2월 야영 대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당시 세운 목표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를 발표하는 순서를 가졌다. 세 개 그룹으로 나눠 귀환 선교사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공과를 통해 실제의 상황을 느끼면서 청소년들을 구체적인 준비에 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87년 청소년 대회 기간 중 하루를 택하여 인근 지역에 선교 사업을 직접하는 경험을 하였을 때 청소년들은 경험을 통하여 많은 면에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했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예비 선교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효과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자

한다.

특히 금년 9월에 갖게 될 예비 선교사 대회 때는 선교사 기금 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토론할 것이다.□

취재 기자: 장 미경 자매

어느 “청소년 활동실”

약동하는 5월이 청소년의 달이라는 것은 당연한 표현이다. 더우기 1829년 5월 15일에 아론 신권이 회복되어 그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아론 신권 회복—159주년이란 오랜 연륜의 행사 시기를 맞이하여 청소년 기획의 일환으로 영동 스테이크 산하의 성남 중앙 지부를 찾아 그곳 청소년 활동의 바탕이 되는 힘은 과연 무엇이며 또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988년 5월 1일 오후 4시. 기자가 찾은 성남 중앙 지부는 아담한 이중 벽돌 건물로 최근에 완공된 교회 표준 건물이었다. 청남·청녀를 위한 모임 시작 전부터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분주했고 시선을 마주친 청남·청녀들은 서로 인사하기에 바빴다.

“한국의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자녀 교육입니다. 그런데 사회나 교회나, 교육 원리는 동일하지만 복음 원리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오정오 지부장은 현직 교사로서 사회의

교육 방법을 교회에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과 온화함과 거짓없는 사랑을 가르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청남·청녀 교육에 적용하였더니 그에 따르는 축복이 온다며 청소년 모임이 잘 되고 있는 이유를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모임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석자 수가 20명으로 늘어났고 모임의 열기는 자연 고조되었다. 통상적으로 있는 감리자의 말씀 순서 대신에 “좋아하는 성구 및 간증” 순서가 있었는데 침례받은 후 처음이라며 발표한 이경수 자매는 자신이 좋아하는 성구



▲ 성남 중앙 지부의 청소년들과 교문들

엘마서 7장 23~24절 중에 있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라”는 내용을 인용하고 간증을 전하였으며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세미나리 시간이 되어 청녀 회장이자 세미나리 교사인 윤 재경 자매는 공과를 이야기 형식으로 이끌면서 교재를 인용하는 등 능숙한 교수법으로

교회 및 지역 소식

진지한 분위기를 이루었고 공과 후에 청소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교사 및 고문들이 청남·청녀 과정을 거쳐 온 독신들이라서 쉽게 융화된다면서 “우선 모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문의 입장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계획하며,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고 확인합니다. 특히 매주 성찬식이 끝나면 그 다음 주 계획을 확인하고 추진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기자는 자매의 말을 듣고 성공적인 ‘모임이 되려면 물론 좋은 계획이 있어야겠지만 역원이 역원으로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이며 또한 그들을 가르쳤던 교사의 모범에 따라 실천에 옮기는 전통—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청남, 청녀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자세 역시 커다란 힘이 됨은 물론이나, 고문들이 애쓰는 정성은 가히 큰 것이었는데, 윤 재경 자매와 청남 회장인 최 영욱 형제는 매주 반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엽서를 띄운다고 하였다.

그들 또한 다른 와드와 지부처럼 반복적이고 제한된 활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싫증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하였으며 그럴 때는 다른 와드/지부와와의 합동 모임을 통하여 재충전한다고 했다.

세미나리 시간이 끝난 후 “자신이 준비한 것만큼 얻는 것도 많다”고 말하는 청녀 최 유경 자매는 “토요일이 항상 기다려져요. 재미있거든요!”라며 웃었고 청남인 유 은배 형제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라며 어른스레 말했다.

활동은 “선교 전시회”였는데 이미 이를 전부터 시작된 지부 선교 전시회와 때를 맞춘 시간이 되자 청남, 청녀들은 각각 들쭉 짝을 지어 길거리로 나갔다.

당당하게 나서서 행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애쓰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주 예수의 군병들이었으며 이들의 모범이 훗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니 등을 돌리는 기자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하였다. □

취재 기자 : 이 호상 형제

김 두성 형제 (전 화곡 와드 감독)

교회 내에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회원들이 있다. 그들은 청소년들의 인생 향로를 정하는 여러 모로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강서 스테이크 부장단의 1보좌로 봉사하는 김 두성 형제도 바로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이다.



1986년 스테이크 부장단에 부름을 받기까지 약 7년간 강서 스테이크 산하의 강서, 공항, 화곡 세 지역에서 감독으로 봉사하는 동안, 단합을 잘 시키는 감독으로 통하기도 한 김 두성 형제는 아들만 셋을 두고 있다. 기 :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소 김 형제님께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청소년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 하하(웃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 : 청소년들과는 어떻게 지내시며, 요즘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리는데 그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 : 예전에 감독으로 봉사 할 때는 청소년들과 자주 만났는데 지금은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청소년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예절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知)·덕(德)·체(體)가 기본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이 지적인테만 치중을 하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 사회에서 지적인 것만을 요구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핵가족 제도에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예절 문제는 교회 어른들께서 보는 대로 지적하여 충고해 주시면 청소년들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 : 김 형제께서는 단합을 잘 시키는 감독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그렇게 단합을 잘 이루었는지 궁금합니다.

김 : 회원들이 모두 잘 도와 주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단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나는 청소년들에게 첫째, 인사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인사는 곧 사람이 해야 할 기본 예의이므로 꼭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어느 때는 줄을 세워 놓고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예절을 배워 나가고 좋은 분위기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두번째는, 접견입니다. 지침서에는 육 개 월에 한번씩 감독이 접견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청소년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주 접견을 했고, 접견하는 동안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세번째는, 모든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임에 항상 함께 했고 한번도 빠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기 :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도록 도와

교회 및 지역 소식

주셨는지요?

김: 예를 들면 페인트 칠이나 환경 정리를 같이 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일을 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면, 교회에 대한 애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기: 청소년들과 선교 전시회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김: 예, 아마 그 당시 청소년들은 지금도 쉽게 구도자를 대하리라 생각합니다.

기: 그때의 청소년들이 이제 모두 커서 거의 다 독신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저는 청소년에게 특별히 귀감이 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자녀처럼 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통해서 변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독신이 된 모습을 보고 객관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생각했으며 대견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독신도 있고 준비하는 독신도 있는데, 그들이 청소년일 때 장기적인 선교 사업에 대한 목표를 주고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기: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김: 이미 모두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절전을 자주 해서 묘목을 돌보듯이 그들을 돌봐 달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돌보는 것은 직책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사랑과 신앙이 전제될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관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 언젠가 독신 토론회에서 우리가 1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몇 명의 형제님들께서 “김 형제님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한다면 그 아버지는 성공한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김 형제님은 청소년 지도자로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대할 때마다 그곳에서 동기를 부여받아 훌륭히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형제를 만나 이야기 하는 동안 그의 신앙과 겸손함을 닮고 싶어졌다. 그를 따르는 청소년들과 독신들의 존경은 아버지가 자녀를 보살피는 듯한 따뜻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취재 기자: 이 경숙 자매

두 자녀를 가진 청녀 회장을 만나 보고

“제가 침례를 받은 것은 1974년 6월 15일입니다. 침례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당시 4와드의 홍 무광 감독님은 제게 청녀 회장의 부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그때 얻었던 간증과 경험이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훌륭한 감독님을 통하여 교회 지침에 대하여 잘 훈련받을 수 있었음을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 스테이크 청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장 성숙 자매는 한 영민 형제와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는 어머니이지만, 아직도 소녀다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1977년, 당시의 서울 스테이크에서도 청녀 회장으로 봉사한 바 있는 장 자매는 교회 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청소년들과 보내 오면서 무엇보다도



▲ 장 성숙 자매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부름의 중요성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분이였다.

교회의 청소년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고문들의 자질 향상과 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청소년들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 가운데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나 문제들을 고문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서 안내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장 자매는 또, 예전에 와드에서 봉사할 때, 역원들의 영적인 준비와 단합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녀 회장단이 금식하고 모여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며, 그 때 걱정을 많이 하게 했던 한 청녀가 지금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결혼하여 성전에 온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당시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결혼 전 보다는 결혼 후에 어머니로서 청녀 회장을 맡고 보니, 청소년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포용력이 커진 것 같다고 하는 장 자매는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주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자 할 때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음성이 주의를 끌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갈등을 겪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 그 자체가 바로 유혹입니다. 갈등 대신 복음 안에서 선택하고, 지도자를 지지하고 신뢰하며 따를 때 문제는 해결되며 축복이 함께 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교회 및 지역 소식

모임에 참석해서 후회하는 일은 없지만, 참석하지 않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장 자매는 먼 훗날에 기회가 닿아도 청소년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부름에 응할 수 있다며 대화를 마쳤다. □

이 기사는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장 성숙 자매를 성도의 벗 기자 정 희순 자매가 만나서 취재한 것이다.

“나는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 병무 형제



▲ 이 병무 형제(앞줄 오른쪽 끝)와 가족

어머니는 말일성도 교회로 개종하기 위하여 침례받을 당시에 나를 임신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나의 가족은 시골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지만 나의 부모님은 교회의 모든 표준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안성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1987년 5월 30일 오후 4시에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침례탕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훌륭한 아버지로부터 침례를 받았으며 그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옳은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나 자신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권고대로 살며 교회의

표준에 맞도록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며 때로는 좌절감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지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교회 안에서 온전히 발전할 수 있었고 그중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매주 토요일에 갖는 중등부 세미나리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세미나리 공과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으며 그때마다 교사인 김 종숙 자매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들었으며 교사님은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물론경을 읽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얻은 간증은 정말 크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는 선교사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겸손하며, 화평한 생기가 돕니다. 나는 스스로 이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가 참되고 지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내가 아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약 십일 개월간 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면서 이 복음이 나를 놀라게 변화시켰으며 나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었음을 압니다. 나는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

이 병무 형제는 서울 서 선교부 산하 안성 지부 회원으로서 아론 신권의 교사 신권 소유자이다. 성도의 벗 기자인 이 경숙 자매가 안성에 취재차 갔다가 이 형제를 만났다.

가족의 청소년 시절

정 영숙 자매

내가 교회를 알게 된 것은 큰언니를 통해서였다. 언니는 75년도에 교회를 알게 되어 우리 가족을 교회로 인도했으며 청소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다. 언니는 세미나리를 공부했고 나의 발전 기록부에 목표를 설정하고



▲ 정 영숙 자매(뒷줄 중앙)와 가족

실천함으로써 말일성도의 아름다운 자매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영적으로 발전하여 청년 메달과 졸업장을 받았다. 그 뒤로 작은 언니가 청년 메달과 세미나리 졸업장을 받았다. 언니는 교회 프로그램 중에서 일등 프로그램을 가장 잘했다. 언니는 그것을 열심히 행하기 위하여 시간마다 기록을 잘하여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모든 일에 앞서가는 자매였다. 작은언니 뒤로 오빠 또한 훌륭하여 형제들이 받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과 세미나리 졸업장을 받았다. 오빠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정신과 신권을 가진 형제로서 남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언니들과 오빠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형제 자매였다. 그러나 나는 청년 메달이나 세미나리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교회 생활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언니들과 오빠는 나에게 항상 많은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 나는 언니들과 오빠 그리고 교사님의 도움으로 나의 발전 기록부의 여섯 분야에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통해 청년 가치관을 확립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졸업과 동시에 아름다운 청년 메달과 세미나리 졸업장을 받았다.

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축복들을 받았다. 훌륭한 가족에 대한 축복을 받았으며, 지금 현재 언니들이 행했던 그 뒤를 좇아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하게

교회 및 지역 소식

되었다.

이 생은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나는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순결하며 거룩한 성품을 키우며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는 주님의 딸로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업에 봉사하고 싶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상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 드리고 우리 가족이 청소년 시절을 교회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축복사의 축복을 받게 되어 기쁘다.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정 영숙 자매는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지부 회원이다.

나의 세미나리 교사

조 봉재 형제

지난 20년간의 신앙 생활을 돌이켜 볼 때, 복음이 나의 인생에 끼친 영향력은 디할바 없이 지대한 것이었다. 나는 그러한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다. 특히 청소년 시절 세미나리 교사가 나에게 심어 준 표준은 아직까지도 나의 신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내가 확신하는 교회의 절대적 영향력 중의 하나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 세미나리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 세미나리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 최초의 스테이크가 설립된 1973년의 일이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운 좋게도 그때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아직 세미나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생소함과 적절한 관리 방법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의 세미나리 교사의 열성은 가히 추천할 만한 것이었다. 나의 첫번 세미나리 교사는 나를 포함하여 세 명뿐인 반원을 위해 바쁜 의과대학 인턴 과정 중에도 한번도



▲조 봉재 형제

세미나리 모임에 늦거나 빠졌던 때를 나는 결코 기억할 수 없다.

그에게는 사람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물론경 과목을 그의 모습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를 좋아했으며, 그가 하는 말은 모두 믿고 따랐다. 우리는 세미나리 시간에 결코 빠질 수 없었으며, 그의 훌륭한 가르침은 나중에 우리 세 명 모두를 세미나리 졸업식으로까지 이끌어 주었다.

후일 나로 하여금 청소년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게 한 동기를 나는 절대적으로 나를 위해 헌신한 나의 첫번 세미나리 교사에게서 찾는다.

나에게는 또 한 분의 기억해야 할 세미나리 교사가 있다. 그가 내게 준 영향력 중의 하나는 나로 하여금 청소년기에 포기할 것과 고수할 것에 대한 표준을 설정케 해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그것은 나의 고교 시절 어느 토요일 모임에서 있었던 지혜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서 더욱 그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말일성도 중 사병으로 복무중인 한 청년이 있었다. 그 형제는 자신이 가진 복음의 표준을 잘 지킴으로써 상관과 동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선임하사 중에 그의 표준과 성실함을 못마땅히 여기는 자가 있었다. 그 선임하사는 부하들이 자신의 말보다 그 물론 청년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에 화가 났다. 어느날 저녁 휴식을 취하는 이 물론 형제의 숙소에 별안간 술에

만취하여 거의 이성을 잃어 버린 그 선임하사가 들이닥쳤다. 그의 오른손에는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 그의 왼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미친듯이 소리쳤다. ‘네가 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쏘 죽이겠다.’ 그의 이성을 잃은 형상은 그 막사를 삼시간에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 넣었다. 그때였다. 이 젊은 물론 형제는 벌떡 일어나서 그를 향해 분명한 어조로 외쳤다. ‘술테면 쏘십시오. 나는 한방울도 마시지 않겠소.’ 그 젊은이의 의기에 찬 목소리는 그 선임하사로 하여금 총을 쏘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를 붙들고 사죄하게 했으며, 후일 그를 개종시켰다.”

그날 저녁 청소년 활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 교훈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훗날 그 말일성도 형제와 비슷한 경우에 있었던 나의 첫 두 달간의 군복무 생활 동안, 그 교훈은 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 주었다.

나의 첫번 세미나리 교사는 지금 서울 동 스테이크의 한 와드에서 일하고 있으며, 또다른 세미나리 교사는 현재 인천 스테이크에 소속되어 있다.

내게 있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준 것이 여럿 있지만 오늘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 생활을 고집하게 한 요소들 중에 나는 나의 세미나리 교사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들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인생에 등불처럼 나의 앞을 밝혀 주고 있다.□

조 봉재 형제는 현재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일 행사 각 스테이크에서 성황리 열려

올해로 146주년이 되는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여러 스테이크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서울 동 스테이크

3월 19일 미아 와드에서 가진 기념 행사에서는 변동 와드 이 관자 할머니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이 자매는 7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전 헌납 후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을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각 와드와 지부 자매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재능 발표회에서는 장위 지부가 으뜸상, 도봉 와드가 보람상을 수상하였다.

폐회 후 정성껏 준비한 비빔밥으로 우정을 나누었다. □

서울 스테이크

3월 26일 삼청 와드에서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한 여러 신권 지도자들과 각 와드, 지부 자매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그간 공로가 많은 이 자영 자매(신당 와드), 마샤 자매(화양 와드), 자매를 가장 훌륭히 도와 주고 있는 김 용환 형제(금호 지부, 김 영숙 자매 부군)가 각각 공로상과 상품을 받았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연극, 기악 합주, 에어로빅, 고전 무용, 합창, 부채춤 등 그간 열심히 준비한 다채로운 재능 발표회를 가졌다. □

성남 중앙 지부의 정치 풍자극은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아 무궁화상을 수상하였다. □

▼ 성전 의식에 참여한 농아 지부 회원들과 선교사



의미깊었던 성전 대리 의식

인천 스테이크에 소속되어 있는 인천 농아 지부는 그동안의 침체된 분위기를 이겨 내고 다시 영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의미에서 어려움을 물리치고 1988년 2월 25일 성전을 단체로 방문했다.

한국 성전이 생긴 이래 서울 농아 지부에 이어 두번째 있었던 이 의식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명백히 밝혀 주는 의미깊은 의식이었으며 보람이 있었던 하루였다.

지금 농아 지부 지부장으로서는 서울 서 선교부 이 혜택 장로가 봉사중이다. 인천 농아 지부가 발전할 수 있고,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하며, 연고가 있는 회원은 아래로 연락하기를 바라고 있다. □

인천 우체국 사서함 52호

전화 : (032)73-0077 교회

(032)763-3873 선교사집

선교사-이 혜택 장로, Johnson장로

강서 스테이크

3월 19일 화곡 와드에서 가진 기념 행사에는 300명이 넘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각 와드와 지부에서 준비한 저녁을 든 후 가진 재능 발표회는 노래, 무용,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매들의 숨겨 경연이 있었다. 특히 60세가 넘는 고령이신 자매들의 활약이 돋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



▲ 서울 스테이크 자매들의 부채춤

▼ 영동 스테이크 자매들의 탈춤



인천 스테이크

3월 19일 스테이크 센터에서 가진 재능 발표회에서는 간석 지부, 수원 와드, 부평 와드 등이 수상하였으며 각 와드와 지부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회원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서울 서 스테이크

3월 26일 노랑진 와드에서 가진 재능 발표회에서 봉천 와드, 시흥 와드, 안양 와드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

영동 스테이크

4월 23일 영동 와드에서 김 만주 부장의 감리하에 상호부조회 회원과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가졌다. 연극, 합창, 무용, 연주 등 다양한 재능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강원도에 두 지방부 조직되다...

원주 지방부 조직

이 도환 서울 선교부장의 감리하에 지난 4월 10일 정 민호 부장의 사회로 원주 지부에서 원주 지방부를 조직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전 영월 지부장인 김 대운 장로가 지방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제1보좌로 권 중환 형제, 제2보좌로 고 주택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이날 이 도환 선교부장은 선교 사업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선교 사업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으며, 개척자의 빛난 얼굴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가정 복음과 방문 교육을 철저히 하고 밖으로 융화 단결과 선교 사업에 이바지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운 지방부장은 “복음이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더욱 많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젊은이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원대한 희망을 품어야 하며 가정에서는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원주 지부의 변 중원 형제, 장 신혁 형제, 태백 지부의 이 규철 형제, 조 덕환 형제, 정 성환 형제, 제천 지부의 권 태광 형제가 각각 대신권을 받았다. 원주 지방부는 원주 지부, 태백 지부, 영월 지부와 청주 스테이크에서 이관되어 온 제천 지부 등 네 개 지부로 구성되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회원의 수는 210명이었다. □

▼ 권 중환 형제, 김 대운 지방부장, 고 주택 형제



강능 지방부 조직

4월 17일 김 종열 부장의 사회로 강능 지부에서 개최된 강능 지방부를 조직하는 모임에서는 전 동해 지부장인 배 영철 형제가 지방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의 제1보좌로 전 속초 지부장인 심 중우 형제가 부름을 받았고 지방부 서기 및 평의원에는 변 광수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이날 모임에서 이 도환 선교부장은 “삼 년



▲ 심 중우 형제, 배 영철 지방부장, 변 광수 형제

전에는 두 지부의 회원이 70명이었으나 오늘은 600명의 회원으로 강능 지방부를 조직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의 지방부와 지부는 내일의 스테이크와 와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했으며 새로 부름받은 배 영철 지방부장은 “교회의 활동 회원이 되면서 나는 신권 지도자들이 하신 말씀 중 교리와 성약 제 4편 2절의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도 지금 신권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그 때에 신권 지도자가 하신 말씀을

똑같이 전해 드립니다. 마지막 날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강능 지방부는 강능 지부, 동해 지부, 속초 지부, 삼척 지부 등 네 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날인 토요일에는 강능 지부의 표준 예배당의 건축을 위한 기공식이 이 도환 선교부장과 관리 본부를 대표한 버치 형제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으며 앞으로의 큰 발전이 주목된다. □



▲ 강능 지부 예배당 기공식 광경

▼ 지방부 모임에서 말하는 이 도환 선교부장



교회 및 지역 소식

브래샤 자매 감사패 받아...

지난 3월 1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한국 총영사관에서는 하와이 라이에 거주하는 제니 브래샤(정복동) 자매에 대한 특별 봉사 감사패 시상식이 열렸다.

홍 순용 총영사는 시상식에서 브래샤 자매가 그동안 하와이와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및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를 방문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 준 봉사와 헌신을 치하하였다.

브래샤 자매는 현재 라이 미화 위원회의 일원이고,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 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남편 브래샤 박사와의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으며, 큰 아들 조나단은 한국 서울 서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작년에 귀환하였다. □



▲ 감사패를 받은 브래샤 자매(가운데)

동신학 연구원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 및 중창 경연 대회

1988년 2월 5일 서울 동신학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활동과 세미나리 활성화를 위해 서울, 영동, 동, 동대문

스테이크와 강원도 지역 청소년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문경 세미나리 과정 퀴즈대회와 중창 경연대회를 가졌다.

스테이크 예선을 거쳐 각각 5명의 대표가 선발되었으며, 필기 시험, 논술, 면접, 개인전, 단체전 등 다양하게 경선이 이루어졌고 중간에 스테이크 중창도 발표되었다.

작년에 비해 면접과 필름스트립 문제가 첨가되는 변화가 있었고 중창은 뮤지컬이 선보이는 등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수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전 : 1위 박 미영 자매(용두 와드)

2위 박 선희 자매(화양 와드)

3위 김 방주 자매(번동 와드)

단체전 : 1위 동대문 스테이크

중 창 : 1위 영동 스테이크



▲ 퀴즈 대회 참석자들

영동 스테이크 초등협회 성극 대회

지난 4월 2일 영동 와드에서는 초등협회 성극 대회가 열렸다.

“금판을 찾아 삼만 리”라는 제목과 물문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민 세계 전도의 그림을 배경으로 각 와드 / 지부의 초등협회 어린이들은 물문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을 극화한 낭송극, 인형극 및 실제 배역을 정한 극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한 대회였다.

대회의 심사를 맡은 신권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훌륭한 모임이었다고 말하였다.

1등은 엘마의 개종 이야기를 극화한

성남 와드가 차지하였으며, 2등은 영동 와드, 3등은 반포 지부가 차지하였다. □



▲ 공연하고 있는 영동 스테이크 어린이들

전국 대회 석권한 말일성도 청녀 배드민턴 선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서울 미림 여자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제 26회 전국 춘계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에서 전북 김제 여중의 배드민턴 선수들은 모두 14개 팀이 출전한 7일간의 열띤 경기에서 전승으로 우승하였다.

코치인 구 경희 자매의 소개로 선교사와 공부를 마친 이들 5명의 선수들은 지난 2월 21일에 모두 침례받아 말일성도 청녀가 되었다.

이들은 고된 훈련 중에서도 복음 가운데 생활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전시켜 꼭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좌로부터 구 경희, 박 영희, 김 희진, 서 은영, 김 연화 자매, 김 영준 교사(감독)